

# 시정질문서 및 답변서

# 의사일정

2003년 12월 6일(토) 10:00

제3차 본회의

## 1. 시정질문

- 지역균형발전과 속초항 활용방안(박명수 의원)
-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의 필요성(김성근 의원)
- 영랑호 주변(산책로) 공원화 계획 및 차량통행 제한 검토(고학재 의원)
- 야간 불법(밤샘)주정차 단속처리 대책(김정한 의원)
- 영랑호 보존 관리대책(홍우길 의원)
- 동명해수공급시설 정비 및 어민기금 관련 (김진국 의원)

# 시정질문서

질문의원	박명수	서명	
제목	지역균형발전과 속초항 활용방안	담당실과	시장

존경하는 최준집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동문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기자 등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정에 열정을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함께 시정질문을 통하여 정책을 논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질문 내용이 시 정책에 도움이 된다면 흥보기회를 삼으시고 질문내용이 정책대안에 쓰이면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시장님께 지난번에 시정질의 하였던 속초시민장학재단 설립제안에 대한 부시장님의 답변 내용에 따르면 2004년부터 6년간 1년에 5억원씩 출자하여 30억원의 장학재단설립을 약속하였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질문 조치내역에 빠졌고, 2004년 당초예산에서도 빠졌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고 봅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1차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제가 충족되어야 만 지역주민의 공공수요에 대응하는 재정규모가 유지되고 다음으로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첫째, 속초지역의 경제정책 방향과,  
둘째,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즉,  
청학동을 중심으로 해서 금호동 북쪽지역에 (구)도심공동화대책  
셋째, 속초항만 확장공사, 속초항의 장점을 살린 미래의 물류컨테이  
너 기지, 속초항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도 중앙중심의 발전전략에서 지방중심의 경  
제 활성화전략 즉 지방분권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과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는  
행정, 산업, 건설, 환경, 교육, 문화, 복지, 예술 등 모든 분야를 망라  
한 방향이 되겠지만,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실  
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계량적 자료 제시를 요구합니다.

또한 속초지역 경제의 현 주소가 어떻게,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 설정을 해야 하는지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최근 3년간 GNP 경제 성장을, 국민소득 성장을 전국과 강원도, 속  
초 단위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각종 지역경제의 시책을 기획 입안하고 추진하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속초경기의  
활성화 대책을 설명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도심공동화 대책의 건입니다.

15여년 전부터 아파트의 밀집과 상가 등의 이전으로 서서히 도심공동화 현상이 이뤄지더니 엑스포 행사를 기점으로 조양동 쪽으로 상권이 쓸리고 있습니다.

교동쪽부터 조양동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개발되어 가고, 몇년전부터 교동의 먹거리촌, 조양동의 D 마트를 정점으로 하여 가전제품 등 여러 가지 상권이 생기더니, 최근 E마트 및 F마트 주변에는 엄청난 자본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교동 이남쪽에 도심개발이 되어가면서 청학동 이북쪽은 서서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더 침체가 계속되면 슬립화가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계획하여 어느정도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도시성장 과정에서 공동화 현상은 불가피한 현상이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연구와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공동화 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몇년전부터 주민의 의견을 취합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장기, 중장기, 단기 사업을 투자하여 진행 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시민들은 행정을 신뢰하고 지역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획하고 투자하는 것이 사무실 및 점포의 공실율이 줄어들고 주민들이 일부 회귀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우리시의 대책방안은 무엇입니까?

2002년 중앙 재래시장에 7억 5,000여만원을 투자하여 화장실 보수, 냉·난방 등 몇가지를 개선하여 줌으로 참으로 고마운 일이나, 이렇게 미미한 투자는 “언 발의 오줌 늦기”가 아닙니까?

더 확실한 투자를 하여 공동화 현상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000명의 생존권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을 해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용역을 많이 하고 관학협의회에서도 매년 연구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주민 및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심공동화에 대한 용역 및 연구를 체계적으로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도심공동화에 따른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무한경기 시대인 21세기에 지방분권의 미명아래 지방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21세기의 새로운 경쟁력을 압축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초시를 경영하면서 가장 속초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하고, 속초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경제에 있어서 신 경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몇 년만 있으면 탁월한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을 것입니다. 미시령 터널화 및 동서고속도로가 개설되면 육로 및 양양공항과 속초항을 중심으로 하늘, 땅, 바다를 손쉽게 연결할 수 있는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물류학자들은 지식, 정보화 물류가 21세기의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속초시의 지방화 정책 하나로 교통과 물류를 접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또한 전국을 커버하고 나아가서는 중국교류 및 러시아 볼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고,

유·러시아 열차를 이용한 물류수송 등으로 종합물류 거점도시로 성장 발전하는 것이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국가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 속초항의 확장공사계획
2. 미래의 종합물류 시스템 및 컨테이너 기지 건설에 대한 청사진을 밝혀 주십시오.
3. 속초항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4. 앞으로 이러한 시설물이 들어설 때 인근 지방자치단체인 양양, 고성과의 파트너 쉽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시장님의 해박한 지식과 경험 시정을 챙기면서 쌓은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큰 그림의 구상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최준집 시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동문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기자, 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만감이 교차하였습니다. 청학동 이북지역의 도심공동화 현상을 준비할 때는 서글픈 생각을 하면서 쓰고, 속초항 확장공사 물류 및 컨테이너 기지, 속초항 활용방안을 쓸 때는 새로이 도약하는 속초, 새로운 희망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썼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해박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시정을 이끌면서 습득한 노하우를 믿으며, 속초의 균형발전, 약동하는 속초 등에 대해서 그 방향과 의지를 확인하는 귀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면 더욱 뜻깊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시정질문서

질문의원	김성근	서명	
제목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의 필요성	담당실과	도시과

한 도시의 발전척도로 중요시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도로망 확충이라 생각합니다. 균형이 잘 잡힌 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이 절대적이라 하겠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잘 계획된 도시계획 도로망과 주요 중심도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이 잘 정비 확충되어야만 균형 잡힌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거대 아파트촌으로 집단화 되어 있는 교동지역의 동부아파트, 현대아파트, 늘푸른 아파트 등 이 지역은 미시령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주간선 도로로만 진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실정인 바, 아파트 지역 도로는 아파트 주민 등의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주차장화되어 양방향 도로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일방통행로가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침 러시아워에는 도로변 밤샘주차 차량, 진출입 도로로 좌회전하는 차량, 우회전하는 차량등이 서로 엉켜 클락션을 누르는 운전자와 차량 사이로 곡예하듯 빠져 다니고 있는 어린 학생들 모두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어 연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 알고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지역은 그 동안 아파트 건설이 집중되어 현재는 13개 아파트에 1만 5천여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나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 우회도로 등 개설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조만간 이 지역에 800여세대 가량의 아파트 신축이 계획되어 있는 것을 감안 한다면 현재의 1개뿐인 주간선 도로로서는 교통량의 수용에 한계를 드러낼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현재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분산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영랑호와의 연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은행연수원에서 광명주유소 앞까지 계획되어 있는 12m 도시계획 도로를 20m 이상으로 확장하여 조기에 개설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질문서

질문의원	고학재	서명	
제목	영랑호 주변(산책로) 공원화 계획 및 차량통행 제한 검토	담당실과	도시과

영랑호변은 주변의 경관과 잘 어우러지는 쾌적한 공간으로서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과 기존의 도로 확·포장이 이미 완료되어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산책로로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벽과 저녁시간 대에는 가족들과 함께 자전거, 인라인, 조깅 등을 하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이 곳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 이 곳을 찾는 이용객들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 곳은 콘도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 등 야간차량 데이트족들의 차량통행이 많아 항상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향후 안전한 산책로 등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레저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영랑호변을 공원화하여 차량진입을 제한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회도로인 7번 국도에서 연결되는 기존의 도시계획도로가 조기 개설되어 화랑도 체험관으로 진입하는 접근도로망이 확충되고, 화랑도 체험관부터 콘도시설 뒤편으로 별도의 차량진입 도로를 개설하여 장사항 방향으로 연결된다면 위에서 언급한 영랑호변 차량통제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다음 몇가지 사항을 물고자 합니다.

- 접근도로망 시설확충을 위해 우회도로 7번 국도에서 연결되는 기존의 도시계획도로 시행시기 등 구체적인 개설 계획과
- 영랑호변 산책로를 종합 레저시설 공간으로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원화 계획
- 차량통제를 위해 화랑도 체험관부터 콘도시설 뒷편으로 별도의 차량 전용도로를 개설하여 장사향 방향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시설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시의 견해와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정    한    의    원			
질문의원	김 정 한	서    명	김정한
제    목	야간 불법(밤샘)주정차 단속 등 처리대책.	담당실과	교통행정과
김정한 의원입니다.			

또다시 계미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의 흐름이 유수와 같다는 삶의 진리를 재삼 느끼면서....

지난해 태풍 “루사”에 이어 금년 여름 “매미”의 상륙에 따른 피해복구 등 시정전반에 걸쳐 노고에 노고를 거듭하신 시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먼저, 질문코자 하는 것은 야간 불법주정차량에 대한 단속 처리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관계부서에서는 과장을 중심으로 주요 간선도로라든가 교통 혼잡지역을 대상으로 불철주야 차량통제 및 불법주정차량에 대한 단속 등 교통지도에 그 무엇보다 열성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오래전부터 보아오고 지금까지도 공공연히 야간에 불법으로 밤샘주차를 일삼고 있는 암체 차주들이 갈수록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면 시민들의 안전통행 및 공공질서 확립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어 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대안을 듣고자 합니다.

노상주차는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만, 야간에 한번쯤 수복로를 비롯하여 이면도로를 돌아보십시오. 사람이 다니는 인도의 곳곳에 밤샘주차를 하는 승용차 및 소형 화물차가 도로 경계석을 타고 넘어 버젓이 사람하나 겨우 다닐 수 있도록 공간만 남겨 놓은 채 밤새도록 서 있는 광경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주차 질서가 엉망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밤샘주차행위를 일삼는다는 것은 질서차원을 벗어난 기본상식 이하의 몰지각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겨울철 폭설기가 다가옵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몰지각한 암체 차주들의 비양심적인 행동이 사라지지 않는 한 갈수록 질서는 엉망이 될 것이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더 눈살을 찌푸리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도위의 밤샘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노상의 불법 주정차 행위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담당 과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지?

또한 적발하여 조치한 실적은 있는지?

인도위의 밤샘 주정차 차량에 대한 실태와 향후 단속에 대한 특별한 계획 등 적극적인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질문서

질문의원	홍우길	서명	
제목	영랑호 보존 관리대책	담당실과	해양수산과

영랑호는 우리나라에서 몇 안되는 석호로서 보존에 가치가 있는 호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오염원의 유입으로 호수가 적조현상, 부영양화 등으로 인해 호수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죽은 호수로 전락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97년도부터 추진중인 영랑호 오염방지 사업이 총사업비 564억원을 투자하여 오염방지사업, 침식방지사업, 차집관거, 수변조성을 위한 호안정비 등 사업이 대부분 마무리 되어가고 있어, 영랑호수는 이제 예전의 깨끗한 호수로 되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수질을 깨끗하게 정비하였는데, 깨끗한 수질을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프로젝트가 없이 시간만 지나면, 또다시 호수가 오염되어 죽어가는 상황이 재발될 염려가 있다고 보여지는 바,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질문서

질문의원	김진국	서명	(날짜)
제목	동명해수공급시설 정비 및 어민기금 관련	담당실과	해양수산과

우리시는 천혜의 비경 설악산, 바다, 호수, 온천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관광도시로서 관광객이 1년에 1,200만명 정도 방문 합니다. 예전에는 단순관광으로 산이면 산, 바다면 바다, 이렇게 관광을 하였는데, 요즘은 복합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관광, 바다와 온천이 어우러지는 관광, 그리고 가장 선호하는 것은 먹거리 관광입니다. 특히, 수산도시로서의 해수욕장, 방파제 등은 해마다 관광객이 몰려 오고 있고, 주변의 산, 바다, 온천 등과 함께 관광자원으로서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을 찾아오고 있는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신선하고 깨끗한 횟집을 즐겨 찾아오고 있으나, 대부분의 항포구 횟집의 경우 내부시설은 깨끗하나 주변환경이 지저분하고 특히, 활어횟집에 공급하는 해수공급시설은 파이프가 무질서하게 난립해 있어 바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관광객에게도 나쁜 이미지를 주는 저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최근 시에서는 아름다운 동해안의 경관을 훼손시키는 횟집의 해수 인입선을 정비하여 공동급수시설을 추진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동명동 해수공급시설을 동명동 영금정 일원의 횟집 6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업자 선정 등 추진실적이 미진한 것 같아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 본 정비계획은 언제까지 완료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향후 동명항 해수공급 이외에 추가로 장사항과 외옹치항, 대포항등의 해수공급 정비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민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82년부터 전복, 어류, 종패 등을 매년 살포하여 오고 있으나, 어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판 수수료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수협 등과 협의해 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 12. 6(토)

제3차 본회의

제125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 市政質問答辯書

# 市政質問 答辯書

자료번호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외 2개부서	질문의원	박명수 의원
------	--	------	-----------------	------	--------

## 《시정질문요지》

- 속초시민장학재단 설립제안에 따른 추진여부
- 도심공동화에 따른 대책방안
- 속초항 확장공사계획 및 활용방안
  - 종합물류 시스템 및 컨테이너 기지 건설에 대한 청사진 제시
  - 인근 지방자치단체인 양양, 고성과의 파트너 쉽 추진방향

## 《답변내용》

-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항상 고심하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최준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박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균형발전과 속초항 활용 방안"중 첫 번째 질문하신 "속초시민장학재단 설립제안에 따른 추진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올해초 가칭 「속초시향토장학회 설립·운영」에 대한 제반 여건 및 타지역의 선례와 실태를 조사·검토하여 오던중 태풍 「루사」에 이어 「매미」 피해 복구사업 투자에 전 가용재원을 편성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상태가 시승격 아래 최악의 조건에 빠지게 되어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판단에 의해,

2004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내년도에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도심공동화에 따른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였듯이 청학동 이북쪽 구 시가지가 공동화·슬럼화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시에서도 주목하고 있으며 또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먼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법정년도가 도래됨에 따라 2010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도시발전방향의 실현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이 계획에서 미래지향적, 친환경적 비전 제시는 물론 구 시가지의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성과물이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그리고, 금호지구와 청학 1, 청학 2지구 그리고 청호지구 등 4개지구에 대하여 172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2001년부터 생활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있어 낙후된 도심 저개발지구의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있는 재래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관광풍물시장, 외국인 테마거리, 대형주차장 등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대형마트와도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구시가지를 관통하는 수복로 개설공사도 351억원의 사업비로 2006년 완공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신수로 교량 준공과 더불어 국비투입이 확정된 속초항 연결교량 사업을 조속히 진행하여 우리시가 도시기반, 주거환경, 교통시설 등 모든 면에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구별이 없는 균형도시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속초항 확장공사 계획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한 중장기 항만개발계획은 현재 백두산 및 금강산 여객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부두를 잡화중심의 항만기능으로 재배치하고 기존 남방파제 내측에 2만톤급 1선석, 외측에 3만톤급 2선석의 관광선 부두를 확보하여 여객터미널의 확장이나 친수공간을 제공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 2020년을 목표로 속초항 개발을 완료하면 98만톤의 하역 능력 증가와 112만명의 여행객을 수용하게 될 것입니다.
- 또한, 항만부지에 종합물류센터를 조성하여 컨테이너 기지의 활성화를 이루고 해운부분의 핵심적 기술변화 특히, 컨테이너선의 대형화로 이어질 것이며 이에 따른 속초 해수욕장 방파제에서 신수로 방파제를 연결하는 공간을 종합물류기자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 속초항은 수산물 어항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과 환동해권의 해상운송, 관광, 물류기지항으로 타지역의 항이 갖고 있지 않은 전국에서 보기드문 천혜의 복합항만으로서 개발 당위성이 아주 높으며, 이러한 입지조건은 환동해 크루즈 산업의 정부차원에서의 지원과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획요인이 되고 있으며,
- 대북, 러시아 등 북방교역의 중심지로서 발전가능성이 높은 환동해권 중심의 관광·교역 도시, 남북교류의 요충지로의 활용 및 수산물 전진기지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이 추진될 것입니다.
- 이러한 계획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대비한 물동량의 부족, 해운수송량의 미확보로 2단계 확장사업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등 정부차원의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 그러나 올해 우리시가 오랫동안 추진하였던 블라디보스톡 까지 북방항로의 연장을 성사시켰고, 내년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착수하는 등 속초항 주변여건이 개선되고 있어,
- 늘어날 수 있는 항만 물동량을 분담 흡수하는 속초항 항만 확장이 다시 진행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사업의 초기 착공에 시의 전행정력을 집주하여 나가겠습니다.
- 시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정성어린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박명수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市政質問 答辯書

자료번호		소관부서	교통행정과	질문의원	김정한 의원
------	--	------	-------	------	--------

## 〈 시정질문 요지 〉

- 야간에 인도위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주민불편이 심각하여 이에 대한 단속 및 처리대책

## 〈 답변 내용 〉

- 교통행정과장 이원찬입니다.
- 김정한의원께서 질의하신 야간에 인도위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단속 및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차량 4대(지도차량 2대, 견인차량 2대) 단속근무자 13명(공무원 3명, 공익근무요원 10명)으로서 속초시 전역을 순찰하면서 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도 주간단속시 차도보다 인도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하여는 가차없이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 공익근무요원이 30명이상 일때는 2교대로 하여 주·야간을 병행하여 단속을 하였지만 현재로서는 불가하며 12월 하순부터는 폭설대비 심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고 1월엔 신규자원 10명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야간단속을 시행 해 나가겠으며
- 아울러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운영결과에 따라 확대 설치하여 운영하면 많이 개선되리라 사료됩니다.
- 상기와 같은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김정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市政質問 答辯書

자료번호		소관부서	해양수산과	질문의원	홍우길의원
------	--	------	-------	------	-------

## 〈질문요지〉

### ○ 영랑호 보존관리 대책

'97년부터 추진중인 영랑호오염발지사업으로 예전의 깨끗한 호수로 되살아나고 있으나,  
이러한 수질을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프로젝트없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염되는 상황이 재발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대책은?

## 〈답변내용〉

영랑호는 수면적 1.024㎢의 천연 석호로서 보존 가치가 높은 호수이나, 인구의 증가와 도시의 팽창으로 녹조발생과 부영양화 등 수질악화를 초래한 바 있으며,

그동안 영랑호정화사업 등으로 상당히 수질이 개선되어 호수 수질등급 V등급에서 Ⅲ~Ⅳ등급으로 개선 되었습니다.

현재의 수질 오염도를 살펴보면,

영랑호 유입수인 장천천의 경우 1일 12,388㎥이 영랑호로 유입되며, BOD 2.8mg/l의 하천수질 Ⅱ등급에 해당됩니다.

영랑호 호수수질 등급은 COD기준 Ⅲ~Ⅳ등급이며, 영양상태는 T-N, T-P 기준시 부영양호로 판정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수질상태는,  
영랑호 하수차집관시설 완료로 생활하수의 유입이 억제되고,  
영랑호 정화사업중 침적물 준설에 의한 담수용량 증가와,  
수시 하구개방에 의한 호수 순환을 증대로 '95년이후 점차 수질  
이 향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재의 수질향상 원인은 영랑호 오염물질 유입억제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되며,  
현상태로 지속적 방치시에는 비점오염원(N.P 등)유입과 호수의  
정체성으로 인한 부영양화 등 수질악화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금년내 착수하여  
내년 수립 완료하고자 준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술자료를 바탕으로 비점오염원 저감방안 모색과 장래  
수질예측 등 종합적인 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영랑호 상류의 장천천 인근 농경지에 약32,000㎡(9,700평) 오염  
방지시설물을 설치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변경과 대상 토지매입 및 실시  
설계 등을 2005년도에 하고, 사업 착공은 2006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타 영랑호오염방지를 위한 방안으로는,

영랑호 하구를 통한 수로시설 설치로 호소수의 정체성 해소가 필요하며,

오염물질 차단을 위한 하수관로시설 보강과 호수변 식생 보강으로 생태학적 정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영랑호 호수수질 등급을 II ~ III등급 개선 목표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영랑호 수질개선(안)과 영랑호의 연도별 수질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랑호 수질개선(안)

- '97년부터 실시한 영랑호정화사업 등으로 상당부분 영랑호 수질이 개선(호소수질등급 V ⇒ III ~ IV) 되었으나
- 주변 농경지등을 통하여 유입되는 비점오염원(N,P등)으로 인한 부영양화 현상의 지속 및 하구 모래막힘 현상으로 호소수가 정체되고 있어 궁극적인 수질개선에 어려움이 있음.

## 1. 일반현황

위 치	수면적	유 역 면 적	호변 길이	평균 수심	유입하천 길이	비고
속초시 3개동 (영랑,동명,금호) 연접	1.024km <sup>2</sup>	10.28km <sup>2</sup> (농경지2.056, 임야5.875 대지1.325)	7.7km	4m	1.673km	

## 2. 수질오염도

가. 영랑호 유입수(장천천) : 수량 12,388m<sup>3</sup>/일, BOD 2.8mg/l  
(하천수질Ⅱ등급 상태)

### 나. 영랑호

- 호소수질등급(COD기준시) : III~IV등급 상태
- 영양상태(T-N, T-P 기준시) : 부영양호

## 3. 수질상태 및 향후 전망

### 가. 수질상태

- 영랑호 하수차집 공사로 인한 오염물질의 유입 억제
- 영랑호 정화사업 중 준설(신수로준설 373,509m<sup>3</sup>, 오니준설 158,917m<sup>3</sup>)에 의한 담수용량 증가
- 정화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수시 하구개방에 의한 호수 순환율 증대 등으로 '95년 이후 점차 수질향상 실정

## 나. 향후전망(예측) 및 대책

- 현재의 영랑호 수질향상 원인은 직접적인 영랑호 오염물질 유입의 억제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되며
- 현 상태로 지속적 방치시는 비점오염원 유입, 호수의 정체성(호소수 체류시간 과다) 등으로 인한 부영양화로 일정기간 이후 수질악화 우려
- 따라서, 향후 영랑호 수질악화의 최대 원인인 비점오염원의 유입차단 조치로 근본적인 영랑호 수질개선대책 수립 및 추진 필요

## 4. 세부 추진계획(안) -- 환경보호과 계획(안)

### □ 사업 추진 방향

-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타당성 조사후 오염방지 시설물 설치

### □ 목적 및 필요성

- 현 영랑호의 수질상태와 영랑호 부영양화의 최대원인인 비점오염원 등의 조사로 정확한 영랑호 환경 용량 파악 ⇒ 학술 용역 성격
- 충실한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비점오염원 등의 저감방안 모색 및 장래 수질 예측 등 종합적인 오염방지대책 수립 가능

### □ 추진일정(안)

-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 : 2003 ~ 2004(1년)
-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변경 결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 2005년 상반기
- 사업대상지역 토지 매입 및 실시설계 : 2005년 하반기
- 사업착공 : 2006년부터

### ※ 오염방지 시설물 설치(안)

- 위 치 : 영랑호 상류 장천천 인근 농경지
- 면 적 : 약 32,052m<sup>2</sup> (9,695평)
- 추정사업비 : 3,000백만원(토지매입비 1,100, 시설설치비 1,900)

## 5. 기타 방안(의견)

- 영랑호하구를 통한 수로시설 설치(바닷물과 순환 유도)로 호수의 정체성 해소 필요
- 기타 오염물질 유입 차단을 위한 하수관로 시설의 보강
- 호수변 식생보강(어류 및 조류 서식처 제공 효과)등 생태학적 접근 필요

## ☞ 영랑호 수질 현황('93 ~ 2002)

(단위 : mg/l)

일자	pH	DO	CO <sub>2</sub>	BOD	SS	T-N	T-P	비고
93.6.27	7.3	5.2	9.5	5.9	12.0	2.370	0.570	
95.7.9	7.3	5.5	7.05	5.7	15.0	3.100	0.380	
96.7.8	7.0	8.9	10.1	4.3	4.0	2.160	-	
97.7.10	9.3	7.8	14.2	5.0	20.0	1.170	0.078	
98.7.	9.3	9.8	12.8	7.2	14.7	1.306	0.099	
99.7.30	7.4	7.0	6.10	-	8.7	2.145	0.112	
00.7.12	8.8	8.3	6.5	-	7.0	1.009	0.047	
01.9.26	7.9	8.1	5.5	2.3	2.4	1.746	0.037	
01.11.30	7.4	9.7	3.5	2.5	7.4	1.364	0.047	
02.4.19	8.0	10.9	6.6	3.2	12.4	1.474	0.068	

### \* 참고사항

- 영랑호 정화사업 착공 : '97. 4. 14
- 수질현황은 영랑호 종류, 표층, 7월 검사성적으로 비교 하였으며 계절별, 채수지점별로 변동이 있음.
- 영랑호 유입 하수관거 공사는 완료 되었으나 2002.5월 현재까지는 부분개통 상태로 완전차집시 수질 향상 기대
  
- ☞ 영랑호 정화사업은 호소수질등급 II~III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화사업 완료후에도 지속적인 관리, 생태학적인 정화사업 추진 등이 필요

# 市政質問 答辯書

자료번호		소관부서	해양수산과	질문의원	김진국의원
------	--	------	-------	------	-------

## 〈질문요지〉

1. 동명해수공급시설의 완료 계획은?
2. 향후 추가로 장사항 및 외옹치항, 대포항 등의 해수공급 정비 계획은?
3. 수산자원조성사업과 관련한 어민기금조성 방안은?

## 〈답변내용〉

동명해수인입관 정비사업은

동명동일대 기존 해수공급시설의 노후와 운영난으로 안정적 해수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며,

횟집에서 연안지역에 해수인입관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하여 연안경관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으므로 해수인입관 정비사업을 통하여 해수를 원활하게 공급함과 연안환경을 보전코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동명해수인입관 정비사업을 위하여 사업비 460백만원 (도비 108, 시비 280, 수협비 72)을 투자하여 취수관로 Φ300mm(백관), 2라인(해상 1,000m)에 취수펌프 60마력 2기 및 기계실 1동과 기타 부속시설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2003. 4월 속초시 주관으로 횟집번영회, 속초수협, 동명동자치위원회, 기존 시설 업자 등과 시설사업 및 관리운영에 관한 상호 합의를 추진하여 속초수협에서 사업 및 관리 운영토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협의 재정형편상 자부담 및 시설관리 운영경비 조달의 어려움과 이사회의 의사결정 필요함에 따라 3회에 걸친 이사회 개최 결과 2003. 7월말에 최종 의결을 득하였습니다.

실시설계는 한정된 사업비로 모든 해수 이용의 수요 충족에 어려움이 있어 난항을 겪다 8. 28일 완료 하였으며,

기존 동명해수공급시설의 보상을 위하여 감정 평가를 9. 25일 완료 하였으나,

보상협의 과정에서 채권자의 이해관계 등으로 보상협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보상협의가 11. 12일에 완료됨에 따라 사업이 자연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인 속초수협에서 2003. 12. 4일 시공업체 선정을 위하여 공개입찰공고(긴급)를 하였고,

2003. 12. 20일전에는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12. 26경에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본 공사의 완료까지 기존 해수공급은 유지될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병행할 것이며,

동절기 기상특보시 해수관로 설치 수중공사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최대한 공기 단축하여 관광시즌에 해수공급의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것이며,

늦어도 2004년 7월까지 사업완료하여 원활하게 해수를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동명해수공급 이외에 추가로 장사항, 외옹차항, 대포항 등의 해수공급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해수인입관 정비사업을 장사동 횟집단지일원에 사업비 360백만원(도비 108, 시비 180, 자담 72)을 투자하여 취수관로  $\Phi$ 300mm(백관), 2라인과 취수펌프 60마력 2기 및 기계실 1동과 기타 부속시설 등을 설치해서 해안경관 보호와 양질의 해수공급이 이루어 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포항의 경우는 방파제에 무질서하게 난립된 해수인입관(고무호스)으로 인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현재 추진중인 대포종합관광어항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최신 공법의 해수공급 시설을 갖춰 쾌적한 관광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외옹차항은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 경관조성 시범대상 지역으로서 외옹차항 주변 정비사업 추진시 연계하여 해수인입관 시설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아름다운 동해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별도 질문하신 수산자원조성사업과 관련한 어민기금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협의 위판수수료 중에서 전복, 어류 종파 살포에 따른 이득금을 수산자원조성 사업용으로 별도로 책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합니다

이문제는 수협과 행정기관의 협의에 앞서 관계법령의 정비가 전제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우리시는 본 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나, 최근 어획고의 급감과 이에 따른 여파로 수협의 경영난과 어업경영인의 제반사업 부진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야 하는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원조성사업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여 온 수산관계자 모두가 자원조성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자율관리어업 정착유도와 기르는 어업 육성 및 고부가가치 수산종묘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확대 투자하여 생계 곤란한 어업인이 없도록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 따로 별도의 의견을 주시면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시정질문 답변서

자료번호	소관	도시과	질문의원	김성근
〈 질문요지 〉				
교동 아파트 집단시설주변의 교통량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확장 조기개설방안?				
〈 답변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도시과장 이태천입니다.</li><li>○ 김성근 의원님께서 교동지역의 아파트 집단시설지역의 교통량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늘푸른 아파트 서측에서 동부 아파트 서측을 통과하여 주공2차 아파트인접 미시로에 연결되도록 계획되어 있는 연장 1221m 폭 12 m의 도시계획 도로를 20m의 폭으로 확장 개설하여 교통소통을 원활이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li><li>○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지역은 보조간선 도로인 폭20m의 미시로를 축으로 도로 양방향에 대규모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고 현재도 새로이 아파트를 신축하고자 준비중에 있어</li><li>○ 현재도 교통량이 많아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파트 신축에 따른 교통량의 증가로 주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가중 될것으로 사료됩니다</li><li>○ 따라서 내년도에 시행하는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시 반영하여 도로폭의 확대는 물론 현재와 같이 본노선이 미시로에 직접 연결되게 되어 있는 교통 체계로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 판단되기 때문에</li><li>○ 교통 체계의 개선 또한 병행하여 검토하여 결정하고 사업의 시행 시기를 앞당겨 우선적으로 개설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li></ul>				

# 시정질문 답변서

자료번호	소관	도시과	질문의원	고학재
〈 질문요지 〉				
1 영랑호변 접근 도로망 확충계획 2 영랑호산책로의 종합레저공간으로 하기 위한 공원화 계획 3 화랑도체험관 인근 콘도 뒷편 차량전용도로 개설계획				
〈 답변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도시과장 이태천입니다.</li><li>○ 고학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li><li>○ 먼저 영랑호 접근도로망 시설 확충을 위하여 7번 국도에서 화랑도 체험장으로 연결되는, 도로에 대한 사업 시행시기등 구체적인 시행 계획에 대하여는 ☞ 본도로는 연장 210m 폭 20m 도로로서 총사업비는 1,200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2004년 투.융자 심사를 거쳐 2005년에 예산 확보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li><li>○ 두번째로 영랑호변 산책로를 종합레저 공간으로 활용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원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영랑호변의 산책로를 포함하여 육지부중 대부분은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결정되어 있는 지역으로 세부 조성계획에 의거 (주) 한일레저와 속초시가 부분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세부 조성계획을 2004년 검토 보완코자 준비중에 있어, 본계획 검토시 반영하여 시민 및 관광객들의 휴양공간으로서의 면모를 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li><li>○ 세번째로 화랑도 체험관 인근 콘도 뒷편에서 장사항 방향으로 자동차 전용 도로를 계획 개설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사항은 이미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2004년 시행하는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정비시 검토코자 준비하고 있는</li></ul>				

사항으로 .

결정되면 년차적으로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개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교학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사일정

2003년 12월 8일(월) 10:00

제4차 본회의

## 1. 시정질문

- 속초해양박물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박명수 의원)
-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방안(김성근 의원)
- 러시아 등 동북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  
(고학재 의원)
- 외래 관광객에 대한 개선 대책(김정한 의원)
- 환경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홍우길 의원)
- 표준정원제와 관련하여(홍우길 의원)
- 농기계수리비 및 농약 구매대금 지원 확대  
(김진국 의원)

# 시정질문서

질문의원	박명수	서명	
제목	속초해양박물관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담당실과	관광과

존경하는 최준집 의장님!

선후배 동료의원, 그리고 동문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기자, 바쁘신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방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더 심도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으로 속초시 발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생산적 행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 해양관이 건립되면 더 없이 좋은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의 계약단계에서부터 너무나 문제점이 많고, 허술하게 해양관 건립 기본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구상, 추진, 시행하려면 우선 타당성 검토 및 현실에 맞는지 조사해 보고, ABT(AQUA BIO TERRA)사의 주소, 대표자, 고용원수, 업종, 자본금, 순수익, 연간매출액, 창립일, 사업실적, 신용과 평가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조사를 마친 다음에 평가하여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회사라고 판단되는 기본조사를 마치고 난뒤에,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수립 1단계에서 1차 투자를 실시하고, 사업규모 등이 확정되는 실시설계 후 2차 투자를 실시하는 등 사업기간과 사업비의 증가에 대한 추가심사를 하는 것이 선결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속초해양관 조성부지는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안에 있어  
동 관광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하는데, 1985년부터 추진  
하고 있는 위 관광지 조성사업을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재원도 제대로 조달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을 때,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속초해양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까?

무엇에 쫓기여서 이렇게 급하게 계약서에 투자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우리시는 막연하게 2004년까지 준공하겠다는 해양관 건립기본 약정을  
체결하고, 부지(6필지 1,527㎡ 1억 6,100만원) 일부 매입까지 하였는지  
본 의원은 너무나 많은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한·불 상공회의소 및 코트락(KOTRA)에 확인해  
본 결과 이번 주 정도면 신용도 평가서가 도착되고, ABT사의 주소는  
오스트리아, 창립일은 1997년 7월 8일, 분야는 컨설팅, 자본금은  
15,000€, 대표는 하정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예정일일 다가오고 계약에 진전이 없자 준공일을 수정하여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지원대책도 없이 국고보조 등 구체적인 타당성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무리하게 해양관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해양관 건립을 추진하지 마시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기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ABT사의 재무재표 및 신용도 평가 등 여러 가지 조사하고  
기본약정을 체결하였습니까?

둘째,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쳤습니까?

셋째,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까?

넷째, 1998년 6월 30일부터 2003년 10월 30일까지의 추진 상황 및 비용  
(컨셉용역 포함)은 얼마나 지출하였습니까?

다섯째, 해양관 조성 컨셉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섯째, 해양관 조성사업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매입한 토지 활용방안,

일곱 번째, 사업기간 연장 및 투자규모 증액은 ABT사 와의 확인 합의  
하에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시정질문서

질문의원	김성근	서명	
제목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방안	담당실과	도시과

우리나라에 공동주택이 건설되기 시작한지는 약 40여년이 지났으며, 그동안 정부에서는 열악했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건설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는 주택 보급율이 100%를 전망할 정도로 크게 향상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시의 공동주택건설은 70년대부터 건설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대략 80여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에서 건축된지 오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물 및 부대시설과, 전기, 수도, 난방, 온수 등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어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안전사고로 부터 무방비 상태라고 할수 있으나, 시설안전 예방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하는 등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가 미숙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동주택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를 들어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므로 관리가 더욱더 부실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서,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타 시군의 경우 공동주택에 대한 단지내 도로포장, 경계석 및 보도설치 등 지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주택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우리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질문서

질문 의원	고학재	서명	
제목	러시아 등 동북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	담당 실과	관광과

고학재 의원입니다.

우리시는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국제적인 관광도시입니다. 또한 그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백두산 관광·교역로를 개설하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광·교역항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유람선, 경수로 등 북한과의 관광·경제·통일외교의 전진기지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에는 일본의 크루즈관광선 관계자들이 우리시를 방문해 관광객 입항 여부를 타진하였고, 또 백두산 항로는 11월부터 블라디보스톡 까지 연장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속초항 관광선부두가 완공된다면 우리시는 명실상부한 국제관광·교역의 도시로 자리매김 받을 수 있는 초석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블라디보스톡까지 연장운행을 위하여 러시아 관계기관과 행정절차 추진시 언어소통 능력이 없어 어려움이 많았고, 축하사절단 파견시에는 러시아어에 능통한 직원이 없어 통역원을 구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장차 동북아 중심의 국제관광·교역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준비하여야 할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다음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향후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본격적인 관광·교역을 위해서는 언어소통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통역원이나 관광안내요원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획(지원계획)은 있는지와 이들 국가 관광객들, 특히 러시아인들을 위한 기본적인 관광대책(안내표지판 설치, 홍보책자 제작 등 )은 없는지?

질문의원	김정한	서명	김( )한
제목	외래 관광객에 대한 지역이미지 개선대책	담당실과	보건소

우리시는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가족단위 각종 숙박시설을 토대로 한 국립공원 설악산과 바다, 호수, 온천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연간 1,000만 명 관광객 돌파라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지 벌써 오래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지역을 방문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이유중의 하나가 모처럼 찾아온 외지인들에게 그에 걸맞는 충분한 서비스 차원의 손님맞이 준비가 너무 허술하고, 관광객을 대하는 각종 업주들의 무분별한 행동이 스스로 이런 결과를 자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인터넷상을 통해 비추어지는 우리 지역에 대한 비판적이고 외면적인 글들이 구설수에 오르내릴 때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까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말이나 연휴 등 외지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날 대포항이나 동명항 등에 가 보신분 들은 충분히 인식을 하실꺼라 믿습니다.

어떤 경우는 정말 민망할 정도로 끈질기게 접근하여 호객행위를 일삼는 경우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터무니 없는 숙박요금의 제시로 시비가 벌어지는 등 온갖 후진국형 형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추태들이 반복하여 계속된다면 앞으로 우리 지역의 앞날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업주 개개인들의 인식이 스스로 바뀌어야 하겠지만, 하루빨리 우리 공무원들이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및 지역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이러한 무분별한 행동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사실을 업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고 선도하여 구태연한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특별한 지도와 홍보가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러한 구시대적인 행태와 관행들이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

앞으로 우리 지역의 새로운 이미지 제고를 통해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질문서

질문의원	홍우길	서명	
제목	환경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	담당실과	시장

홍우길 의원입니다.

연일 지역경제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더욱이, 동북아 물류기지와 관광의 중심도시로서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주변국에 주도적인 외교활동을 하시고, 그 성과로 가시적인 효과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타시군의 부러움을 받고 있음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환경에 대한 시 정책은 너무나도 미흡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얼마남지 않은 쓰레기매립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하여 왔으나 4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대안이 없이 답보상태로 있는 바,

첫째, 현재의 쓰레기 처리방법은 중장기적 처리시설과 매립장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대처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바, 여기에 따른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며,

둘째, 쓰레기처리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하여 27%로 자립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봉투값의 인상만이 대안이 될 수는 없는것으로서 쓰레기처리 재정 자립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쓰레기처리에 대한 운영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질문서

질문의원	홍우길	서명	
제목	표준정원제와 관련하여	담당실과	자치행정과

홍우길 의원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는 표준정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표준정원제는 88년 도입되어 시행되다가 IMF이후 지방공무원 구조조정의 추진을 위해 98년부터 중단되었다가 지방분권 운동에 발맞추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IMF이후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축이라는 미명하에 수만명의 지방공무원을 구조조정 하였으며, 지방화 시대를 외치면서 계속적으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행정수요와 욕구가 증폭된 관계로 살인적인 업무에 수년동안 시달려 온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의 수는 선진국의 1/3 ~ 1/5수준임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우리시는 몇배의 공무원을 더 늘려야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표준정원제를 부활하면서 우리시와 같은 경우에는 불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하여 지난 평가에서는 25명을 감원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시 공무원들은 업무가 더욱 많아지고 더욱 많은 시민불편을 주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여기에 따른 자치행정과의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질문서

질문의원	김진국	서명	
제목	농기계 수리비 및 농약구매 대금 지원확대	담당실과	농업기술센터

지금 우리나라는 농민정책의 쌀 개방정책과 농업정책 미흡으로 많은 농민들이 궐기와 호소를 하고있는 현실이고, 우리시는 농업중심의 도시는 아니지만 도시형 농촌으로서 구성비 0.6%에 달하는 비율로 새로운 농업개발이 없이 열악한 상태에서 꾸준히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외지인들의 토지를 소작하며 나름대로 생계를 유지하여 왔지만 휴작 농업에 대한 정책으로 토지주들이 소작을 주지 않고 정부에 휴작에 따른 보조비를 받음으로써, 농가들은 소작의 농사 면적까지 감안하여 비싼 농기계를 구입하여 사용해 오는 실정으로서,

소작이 줄어드는 현상이 되면서 농기계수리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5만원까지 지원하던 수리비용을 10만원으로 조정하여 농민부담을 덜어 줄 용의는 없는지 물고 싶습니다.

아울러 우리지역의 논농사는 540ha로서 주변 양양군 2.400ha, 고성군은 3,453ha로 우리지역보다 5배이상 되는 면적에 대하여도 농약 구매비용을 100% 지원해 주고 있으나, 우리시는 금년도에 농약 구매비용 5천 2백여원중에 62.5%인 3천 3백여만을 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도의 계획을 보면 고성군과 양양군은 각각 1억 3천만원과 3억 2천만원을 100% 지원할 계획에 있으나, 우리시는 오히려 금년보다 지원비율이 낮은 57%인 4천 5백만원을 지원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 농민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농사를 짓고 있는 고충을 해아려서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행정이 사기를 저하 시키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본 질문과 관련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3. 12. 8(월)

제 4 차 본 회 의

제125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 市政質問答辯書

# 市政質問 答辯書

자료번호		소관부서	환경보호과	질문의원	홍우길 의원
------	--	------	-------	------	--------

## 〈시정질문요지〉

- 쓰레기 처리방법 중 중장기적 처리시설 및 매립장 운영 방안
- 쓰레기처리 재정자립도 제고 방안

## 〈답변내용〉

- 평소 우리지역 환경보전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최준집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홍우길 의원님께서 쓰레기 처리방법 중 중장기적 처리시설과 매립장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둘째로 쓰레기처리 재정 자립도 제고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 먼저, 쓰레기 처리방법 중 중장기적 처리시설과 매립장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효율적인 쓰레기처리를 위하여 이미 99년 5월에 폐기물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그중, 음식물처리시설사업은 기술공모를 통해 업체가 선정되었고 2004년도에는 공사완공과 시운전까지 가능해 2005년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조치에 대처가 가능할 것입니다.
- 또한, 소각시설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부지가 인근 자치 단체와의 거리가 2Km 이내에 있어 폐촉법에 의한 협의가 이루 어지지 못해 환경부로부터 국비 반납을 요구받은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당초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시설규모 50톤/일은 우리시 쓰레기 배출량으로 보아 협소하다는 판단하에 증설 검토등이 요구됐던 상황을 감안하면 2004년도 신규사업으로 신청하여 재추진함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은 현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지선정중에 있어 늦어도 2004년 1월중에는 입지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설사업의 경우 지역의 여건과 사업의 특성이 다른관계로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못함에 대하여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나, 앞으로는 환경에 대한 시책이 종합적인 계획에 의거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면적이 협소하여 매립시설 등의 환경기초시설 가용 부지는 한정된 상태에서 관광객 증가로 인한 쓰레기의 증가와 연이은 태풍피해로 인해 쓰레기 매립량이 급증되고 있는 실정으로 쓰레기 매립장의 철저한 운영관리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 부족한 운영인력과 열악한 주변 환경여건은 물론, 현재 사용중인 매립장은 폐촉법 시행 이전부터 사용되어 오고 있어 운영 관리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 이에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매립장 운영상의 가장 고질적인 민원이었던 침출수를 하수처리장에 직송처리하므로서 민원을 완전 해소하는 한편, 조양동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 주민감시원을

매립장내에 상주 배치시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에서의  
지적을 수용, 처리하고 있으며

- 또한,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8월1일부터 매립장 관리를 위한 생활환경팀을 신설하여 매립장 관리를 전담케하므로서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쓰레기처리 재정자립도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재활용품, 일반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 이에따라 환경미화원 감원이 예상되고 있고 또한, 향후 자연  
감원에 대하여도 신규채용은 하지 않을 방침에 있어 앞으로  
효율적인 청소행정 운영과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홍우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市政質問 答辯書

자료번호		소 관	자치행정과	질의의원	홍우길
------	--	-----	-------	------	-----

## 【질문요지】

표준정원제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경우 불합리한 산정방식에 의하여 25명을 감원해야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의 업무량은 더욱 많아지고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 【답변내용】

자치행정과장 최용철입니다.

홍우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표준정원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 표준정원제의 개념은

- 「인구」, 「재정」, 「면적」, 「산하기관수」 등
- 지역여건이 비슷한 지방자치단체들이 평균적으로 갖는 적정범위의 공무원 수를 말합니다.

### ○ 표준정원제 운영의 배경은

-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조직운용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인력운용 기반 정착과
- 무분별한 인력팽창을 예방함으로써 자치단체간의 조직과 정원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 ○ 행정자치부에서

- 1988년도에 「지방공무원 정원산식」 개발 이후
- 7차에 걸쳐 개선 보완하여 시행해오던 제도로서
- 1998년에 구조조정의 여파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 2003년 5월 1일자로 다시 부활 시행하고 있습니다.

## ○ 금년에 발표된 표준정원제는

- 기본변수 4개( 인구수, 면적, 洞수, 일반회계 결산액 ) 를 적용하여 기본정원을 산출하고
- 기본정원에 표준화지수를 곱하여 표준정원을 산출하여
- 우리시의 표준정원은 499명으로
- 현 정원 523명은( 방범원 포함 525 명 ) 표준정원에 비하여 24명이 초과된 상태이나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시행규칙에서 표준정원 시행 이전의 지자체 정원은 행자부 장관이 「승인」 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여 「인위적 감원」 은 없겠으나
- 이는 2005년까지 시행되며, 우리시의 경우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 향후, 우리시 표준정원을 늘이기 위해서는

- 표준정원 재산정시 우리시의 특수한 여건들을 발굴 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 표준정원 기본변수의 하나인 「일반회계 결산액」 을 높이기 위해 「예산집행 활성화」 를 통한 표준정원 재산정에 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이상으로 홍우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표준정원제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市政質問 答辯書

자료번호		소관부서	관광과	질문의원	박명수
------	--	------	-----	------	-----

## 《시정질문 요지》

- 속초해양박물관 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 《답변내용》

- 박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속초해양관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일곱가지 질문중 첫 번째로 질문하신 “ABT사의 재무재표 및 신용도 평가 등 여러 가지 조사하고 기본약정을 체결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사업은 금강산 개발에 대비 설악관광의 차별화·특성화를 위하여 첨단해양관광인프라 확충이 필요하여 외자유치로 관광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였던 사업으로서

지난 '98. 6. 30일 프랑스ABT사와 체결한 기본약정은 ABT사의 신용도 평가조사를 거쳐 법적 기속력을 가지고 있는 양해각서(MOU)가 아닌 쌍방이 선의의 동반자로 신의를 가지고 기본적인 협의사항을 약정한 것으로

당시에는 한국해양연구소, 프랑스 기술 및 자금지원 창구인 프랑스 산업재경원 소속 국립과학관 관계자가 참관하는 등으로 별도 ABT사의 신용평가 조사는 하지 않았으며

- 우리시는 토지확보, 기반시설 확충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ABT사는 개발개념, 자금확보, 시설 운영 및 기술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 본 해양관내에 한국해양연구소 임해연구기지 유치는 물론 프랑스 국립과학관과 ABT사는 본 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기술지원 및 외자 도입을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98. 6.30일 기본 약정체결과 외자유치를 위한 부지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98.11.24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14필지 10,075m<sup>2</sup>을 매입하기로 하였으며,  
본 사업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99. 4. 15일 시의회로부터 동의를 득하였고
- 2000.12.19일 시의회의 재의결을 거쳐 같은 면적에 대해 2001년도 당초예산에 총 5억 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6필지 1,527m<sup>2</sup>(462평)에 161백만원을 투자·매입하였습니다.
-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 대하여는 관광지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후, 법률자문을 거쳐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 또는 협약서를 상호 체결한 다음,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세 번째로 질문하신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사업 부지는 속초해수욕장 관광지내에 위치하여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계획에 시설 반영은 필수적이므로

- 2001. 12. 21일 관광지조성계획변경 및 환경·교통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2003. 5. 6일 원주지방환경관리청으로부터 “해양관 주변의 해안 시설물(인도양, 대서양관)은 자연지형을 그대로 활용하되, 가능한 내륙쪽으로 이격시켜야 한다”라는 의견으로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받았으며
  - 오는 12월 중순 교통영향평가 지방심의(보고)를 거쳐 협의가 완료된 후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 네 번째로 질문하신 “1998년 6월 30일부터 2003년 10월 30일까지의 추진상황 및 비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 6. 30일 프랑스 ABT사와 해양관 외자유치를 위한 기본약정을 체결하였으며
  - '98. 11. 24일 부지매입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을 득하였으며, '99. 4. 15일 본 사업 추진에 대한 시의회 동의 등을 걸쳐 부지 6필지 1,527m<sup>2</sup>에 161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그리고, '99. 3. 26일 프랑스 국립산업과학관과 기본 컨셉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중간 및 최종보고회 등을 걸쳐 539,000프랑 (한화 82백만원)의 비용을 지급하였으며
  - 2002. 2. 4일 ABT사는 외국인투자신고와 2002. 2. 6일 주식 회사 여산바이오테크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바 있습니다.
-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해양관 조성 컨셉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컨셉용역은 '99. 3. 26일 프랑스 국립산업과학관과 계약 체결하여 '99. 4. 18일부터 2000. 10. 17까지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 2000. 4. 6 중간 보고회와 2000. 11. 27일 최종보고회를 통해 최종 성과품이 납품되었습니다.

- 본 컨셉용역은 사업시행 이전의 선행사업으로 타당성 조사로서 지역여건 분석 및 예측, 시설 프로그램의 구성요소와 우선 순위 설정, 관광 요소 등을 포함한 주요기능과 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 주요 시설로는 한국의 바다 등 총 6개의 해양세계 탐험과 해양연구센터 등 해양산업 전시관, 해양산업관, 교육자료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해양관 조성사업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매입한 토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사업은 대규모 외자유치 사업으로서 사업 장기화로 인한 상호 신뢰성 회복과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일정과 투자계획은 물론 책임과 역할이 제시되어야 하는 바
  - 우리시는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후, 법률 자문을 거쳐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 또는 협약서를 상호 체결한 다음, 자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ABT사 대표 하정명에게 2차례(2003. 4. 18, 9. 5)에 걸쳐 통보한 바 있으며
  - 프랑스 ABT사가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이후 해양관 사업의 구체적인 자금조달과 투자계획, 그리고 책임과 역할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된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고 이행하겠다는 공식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양해각서 체결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나
  - 만약, ABT사에서 이행하여야 할 사항들을 미 이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민간자본 투자 유치 및 공모방식으로 새로운 파트너를 선정하여 실현 가능한 적절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 그리고 市가 2001년 당시 매입한 6필지 1,527m<sup>2</sup>에 대하여는 본 사업과 연계한 투자가를 대상으로 유·무상 임대 또는 매각 등의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및 시의회 의결을 거쳐 사업 유치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해양관 사업기간 연장 및 투자규모 증액은 ABT사와의 확인 합의하에 한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양관 건립을 위해서는 속초해수욕장 관광지조성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市가 임의로 해양관 사업계획을 결정·반영할 경우 실시설계 및 사업착수시 이해관계자인 프랑스 ABT사와의 갈등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용역 기간중인 '02. 3. 15일과 10. 29일 2차례에 걸쳐 ABT사측 대표 하정명과 건축 설계자, 그리고 용역업체와 실무회의를 걸쳐 '02. 8. 2일 중간 보고회의시 사업기간과 투자규모 등을 반영하게 되었으며
  - 사업기간으로는 1·2단계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로는 약 2,200억원입니다.
- 
-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시정질문답변서

자료번호		소관	관광과	질문의원	고학재 의원
------	--	----	-----	------	--------

## 〈 시정질문요지 〉

- 향후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본격적인 관광, 교역을 위해서는 언어소통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통역원이나 관광안내요원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획(지원계획)은 있는지와 이들 국가 관광객들 특히 러시아인들을 위한 기본적인 관광대책 (안내표지판 설치, 홍보책자 제작 등)은 없는지?

## 〈 답변내용 〉

우리 시 발전과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고학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러시아 등 동북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는 영어2, 일어2, 중국어 3명의 통역요원을 확보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시를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 통역에 크게 활용하고 있으나, 러시아 통역 요원은 아직 확보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새로 모집하는 통역요원중에는 러시아어 통역요원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시비로 러시아 통역전문요원을 양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러시아인들의 입국과 향후 예상되는 러시아 관광객들의 유치에 대비하여, 러시아어로 제작된 관광안내책자와 안내지도를 관광안내소와 숙박업소등에 이미 배부하였으며, 현재 동춘항운터미널 주변에 중국·러시아어로 표기된 관내 주요 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관광안내도를 제작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 아울러 상가, 요식, 숙박업 등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러시아어가 표기된 간단한 대화를 구사할 수 있는 포켓용 외국어 책자를 배부하기 위하여 제작 의뢰중에 있는 등 외국인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학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書面質問 答辯書

자료번호		소 관	도시과	질문의원	김 성 근
------	--	-----	-----	------	-------

## 【질의요지】

-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시설에 대한 지원방안

## 【답변내용】

-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시설에 대한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김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을 유치한 결과, 4개업체 796세대가 주택건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3 ~4개업체가 추가로 1,200여 세대를 계획함으로서 주택난은 완전히 해소 될 전망입니다.
- 현재 공동주택 현황은 80개단지, 294동 (18,290세대)이 건립되어 있으며 이중 건축물과 부대시설의 노후화로 주공1차 아파트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법 제43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앞으로는 공동주택도 관리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2003.11.30일자로 주택법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주택법시행규칙의 법제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법 시행도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12월 중으로는 시행 될 것으로 판단되나, 추후 주택법 운용부처인 건설교통부의 표준조례안이 마련되고 준칙이 시행되면 우리시도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방안을 마련코자 하겠습니다.

# 市政質問 答辯書

자료번호		소관부서	농업기술센터	질문의원	김진국의원
------	--	------	--------	------	-------

## 〈시정질문요지〉

0 농기계 수리비용 지원 확대 : 5만원 → 10만원

0 수도작 병해충방제 농약 지원비율 확대

## 〈답변내용〉

### 0 농기계 수리비용 지원 확대

- 현재 「속초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 기종당 무상수리 비용으로 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농기계 노후화 및 수해피해로 고장 수리 수요가 증가되고 수리비용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 2004년 영농기 이전(3월) 조례개정을 통하여 농기계 부품지원액을 기종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여 농가 농기계 수리비용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0 수도작 병해충방제 농약 지원비율 확대

- 2004년 병해충 방제비 당초예산 편성액이 전체 소요액 78,780천원의 57%인 45,000천원으로 농가 자부담 비율이 높아 경영비 부담이 높아지나 농업의 국제화·세계화에 따른 2001년 DDA협상으로 직접보조금 지원 불가 예상에 따른 농업인 충격 완화와 친환경 농업과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쌀 청정 이미지 정착을 위한 친환경농업 확대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 수도작 주요 병해충 물바구미, 도열병, 죽명나방 3회 방제비 총 소요액 78,780천원의 80%인 63,000천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18,000천원은 1회 추경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市政質問 答辯書

자료번호		소관부서	보 건 소	질의의원	김정한 의원
------	--	------	-------	------	--------

## 〈시정질문요지〉

- 항포구 호객행위 부당요금 불친절로 인해 관광 속초의 이미지가 손상되는바 이에 대한 균절대책 강구

## 〈답변내용〉

- 현재 관내 항포구에서 행해지고 있는 호객행위와 불친절로 인해 각종 민원이 야기되는 등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훼손은 물론 미래를 저버리는 과오로서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음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호객행위와 불친절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2003.11.15 부터 강화하는 한편, 단속에 따른 안내문 발송과 아울러 단속의지를 예고도모하고 현재 주말과 연휴에 지도점검을 2개조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 특히 점검시는 환동해 중심의 국제관광 교역의 거점도시인 속초시는 산업 구조의 70%이상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므로서 소득원이 관광객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한치 앞의 이익보다는 지역의 미래를 생각하는 차원에서의 공감대가 동일업에 종사하는 업주로부터 형성될 수 있도록 강력히 주지시키고 있음.
-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이 고장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다시오고 싶은 속초」 「더 머물고 싶은 속초」로 승화시키고 관광지 이미지 상을 재정립하여 관광 맞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